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평창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2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생방송 아침이 좋다	30 생방송 오늘 아침	10 닥터 365 15 해피 시스터즈 55 평창 2018 <컬링/스노보드/피겨 스케이팅 /알파인 스키>
9	00 평창올림픽 라이브 <컬링/스노보드>	1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50 여기는 평창 <피겨 스케이팅/알파인 스키>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미국, 컬링 남자 /피겨/알파인스키/스노보드>	
10				
11		10 여기는 평창 <피겨 스케이팅/알파인 스키>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미국, 컬링 남자 /피겨/알파인스키/스노보드>	
12	10 KBS 뉴스 12 35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20 SBS 뉴스 30 평창 2018 <피겨스케이팅/알파인 스키 /노르딕>
1	35 평창올림픽 라이브 <알파인스키/노르딕복합>	30 생생정보 스페셜	35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지오메카 55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00 강력추천 배틀 트립 30 여기는 평창 <아이스하키 여자 B조 코리아: 일본 16: 40-19: 00 *남북한 단일팀>	25 2018 평창동계올림픽 <코리아: 일본, 여자 아이스하키 예선>	00 평창 2018 <아이스하키/스피드 스케이팅>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스페셜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50 여기는 평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결승 19: 00-20: 30 *이상화, 김연영, 박승희>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	30 평창 2018 <아이스하키/스피드 스케이팅>
7	00 KBS 뉴스 7 35 설특집 종갓집 아씨들			
8	25 미워도 사랑해	30 여기는 평창 <컬링 남자 예선 대한민국: 스웨덴 20: 05-23: 00>	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스웨덴, 컬링 남자 예선>	20 SBS 8 뉴스 45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0 힐링다큐 나무야 나무야 시즌3			00 리턴
10	30 숨터 35 설 특집 한식원정대			
11	25 KBS 뉴스 35 평창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00 설 특선영화 <특별시민>	00 MBC 뉴스데스크 30 평창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평창, 우리의 밤	10 싱글와이프 1~2부
12				30 평창 투니잇

TV 하이라이트

권력 향한 치열한 정치 전쟁이 시작된다

특별시민(KBS2·밤 11시)

서울시장 변종구(최민식 분)가 차기 대권을 노리며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선 거전을 다룬 내용으로 지난해 4월 국내 개봉해 136만여 관객을 동원했다.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거야.” 오직 서울만 사랑하는, 발로 뛰는 서울시장 ‘변종구’(최민식), 하지만 최고 권력을 지향하며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정치 9단이다. 선거 공작의 일인자인 선거 대책본부장 ‘심혁수’(곽노연)를 파트너로 삼고, 변종구는 차기 대권을 노리며, 한창 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쟁쟁한 라이벌인 양진주(라미란 역)의 등장으로 선거는 더 치열해지고 심혁수와



양진주의 선거대책본부장 임민선(류혜영 역)의 싸움 역시 과열된다. 싸움이 격해질수록 심혁수는 더욱 치

열한 방법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 변종구의 3선을 향한 선거전에 위기가 거듭되는데..



여배우 3인이 전하는 숲이야기

힐링다큐 ‘나무야 나무야’ 시즌3(KBS1·밤 9시40분)=2017년 설과 추석 특별기획 총 5부작으로 방송된 후 시청자들의 큰 호응과 높은 시청률을 바탕으로 KBS 1 TV 간판 특집다큐로 자리 잡은 ‘힐링다큐 나무야 나무야’가 2018 설 연휴를 맞아 세 번째 시리즈로 시청자를 찾아온다. 아름다운 힐링의 공간인 숲을 찾아가 나무들로부터 받는 감동과, 자연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시청자에게 전하기 위해 김미숙, 박진희, 김규리 등 배우 3인이 이번 ‘힐링다큐 나무야 나무야’ 시즌3의 스토리텔러로 나서, 참신한 자연다큐를 완성했다.



‘만죽재’ 종부의 팔순잔치

종갓집 아씨들(KBS1·오후 7시35분)=350년 전 경북 영주 무섬마을에 처음 자리를 잡았던 반남 박씨 종가 ‘만죽재’, 올해 종부의 팔순을 맞아 제각각 흩어져 살던 자손들이 모여들었다. 만죽재는 무섬마을에 처음 뿌리를 내린 집이다. 지금은 안동의 의성 김씨 종가에서 태어나 스무 살에 꽃가마 타고 시집은 11대 종부 김시해(80) 할머니가 홀로 지키고 있다. 모두 한 방에서 태어났다는 만죽재의 여섯 딸들이 가을걷이가 끝난 무렵, 종부의 팔순 잔치날 잔정 나들이를 했다. ‘종부’가 6대로 이어진, 아들이 귀한 종가에서 세대를 뛰어넘어 우애가 깊은 딸들이다.



한식의 멋과 품미 전한다

한식원정대(KBS1·밤 10시35분)=설을 맞아 지구 끝까지 간다 ‘한식원정대’를 준비했다. ‘한식원정대’에는 홍석천, 공민지, 송훈, 김주현 등이 출연하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터키에서 한식의 멋과 품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이들의 고군분투를 담았다. 지난해 10월 노년벨리저널 올드타운 고교 한식 급식 체험 행사에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브라이언과 가수 솔비가 한식원정대원으로 참석해 학생들에게 배식 서비스를 하며 한식홍보 활동에 힘을 보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4일(음 12월 29일 丁丑)

子 48년생 잡지만은 알을 것이니 맹목적으로 낙관하지 말고 조심성 있게 다루자. 60년생 하는 일마다 순조로워서 경사가 곱칠 수도 있다. 72년생 재테크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84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행운의 숫자 : 83, 49

丑 49년생 가급적 보유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61년생 관련된다면 부담스러운 일들이 속출할 것이니 즉시 철회하는 것이 낫다. 73년생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85년생 어떤 역할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지겠다. 행운의 숫자 : 42, 03

寅 50년생 대박이 날 수도 있다. 62년생 거칠게 출렁이던 파도도 잦아들더니 드디어 순풍이 불어올 것이다. 74년생 급하게 뛰어들어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겠다. 86년생 인간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53, 80

卯 51년생 허황된 생각일량 벗어 던져 버리고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좋다. 63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75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87년생 지나간 일을 되돌아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8, 82

辰 52년생 항상 매사가 절대적이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느니라. 64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76년생 새우지마의 이치이니 차리러 더 나눌 수도 있다. 88년생 노파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8, 48

巳 53년생 기본적인 사실 속에서 중재할 일이 이루어진다. 65년생 희비의 쌍곡선이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서 반복되리라. 77년생 실행하지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9년생 모든 일에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8, 25

午 42년생 객관적으로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54년생 속히 진행할수록 성과가 두드러진다. 66년생 관계의 인식에 있어서 유연함이 절실하다. 78년생 적절하게 지속 된다면 큰 성과를 거두리라. 90년생 사소한 흠결을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51, 68

未 43년생 옳다고 확신한다면 밀어붙여도 된다. 55년생 변화가 온다. 67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돌고구를 마련할 수 있다. 79년생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91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있도다. 행운의 숫자 : 97, 12

申 44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56년생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닭 쫓던 개의 양태가 될 수도 있다. 68년생 예견했던 바가 실제로 발생하겠다. 80년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임하는 것은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2, 96

酉 45년생 파격적인 제안이라면 조건부일 가능성이 높다. 57년생 디담돌이 될 것이다. 69년생 승산 있으니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81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니 아니다 싶으면 미련을 버리고 고집만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4, 90

戌 46년생 작은 불뎠은 보이나 결코 커다란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58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70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까지 수월할 것이다. 82년생 길성이 비추면서 흥이 절로 나리라. 행운의 숫자 : 62, 46

亥 47년생 손바닥 날 정도도 빨리 처리해야만 효과를 보느니라. 59년생 집중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리라. 71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하게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83년생 정곡을 찌러서 말해 줘라. 행운의 숫자 : 33, 5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예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문화소의 주름 펴는 찾아가는 문화”
우리도 가훈 만들까?

특집
‘문화소의’ 주름 펴는 찾아가는 문화

- 동네 미술관, 마을 작은 도서관이 커운 어중생 화가, 할머니 시인
- 고희, 진도 등에 작은 영화관 개관
- 오지, 섬마을로 찾아가는 예술단

기획-새시동속 이야기
정월대보름 좋은 글귀로 가훈 쓰는 풍습
우리도 가훈 만들까?

노중환의 꿈의 여행에 깊고 아름다운 검무론 숲 독일 블랙 포레스트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푸른 꿈이 자라는 사유의 정원 '부산 인디고서원'

여행이 만난 이 사람들
화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영화배우 신성일 KIA타이거즈 안방 주역으로 성장한 포수 한승택

예향 초대석
‘광주의 밥 달린’ 작곡가 박문옥
“통기타 40년, 광주가 나의 음악”

기획-광주돌리 다시보기②
홀리와 광주음성
광주음성 이해할 때
1차 풀리의 의미 살아난다

공립미술관의 길을 본다④
일부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히로시마현립미술관 아마구치현립미술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사랑받는 미술관

문항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④
신석경 시의 심지를 만나다 석정문학관

전시 리뷰
마리 로랑생-색채의 황홀
성공주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재평가 선택한 사진가 브래쇼 Vs. 토스카니

문화 화제
2018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이제 시작의 문을 열었을 뿐이죠”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열악한 제작 환경, 드라마 강국의 불편한 민낯

해랑수산부 공동 기획 겨울버디 여행
삼척시 갈남마을 -안산 대부도 -고향부리 마을

당만 다도해
꿈꾸는 섬들의 고향
신안 新安
-천 가지 즐거움 만끽
-오복만 느꼈던 행복
-갈진 맛, 흑신도 풍미